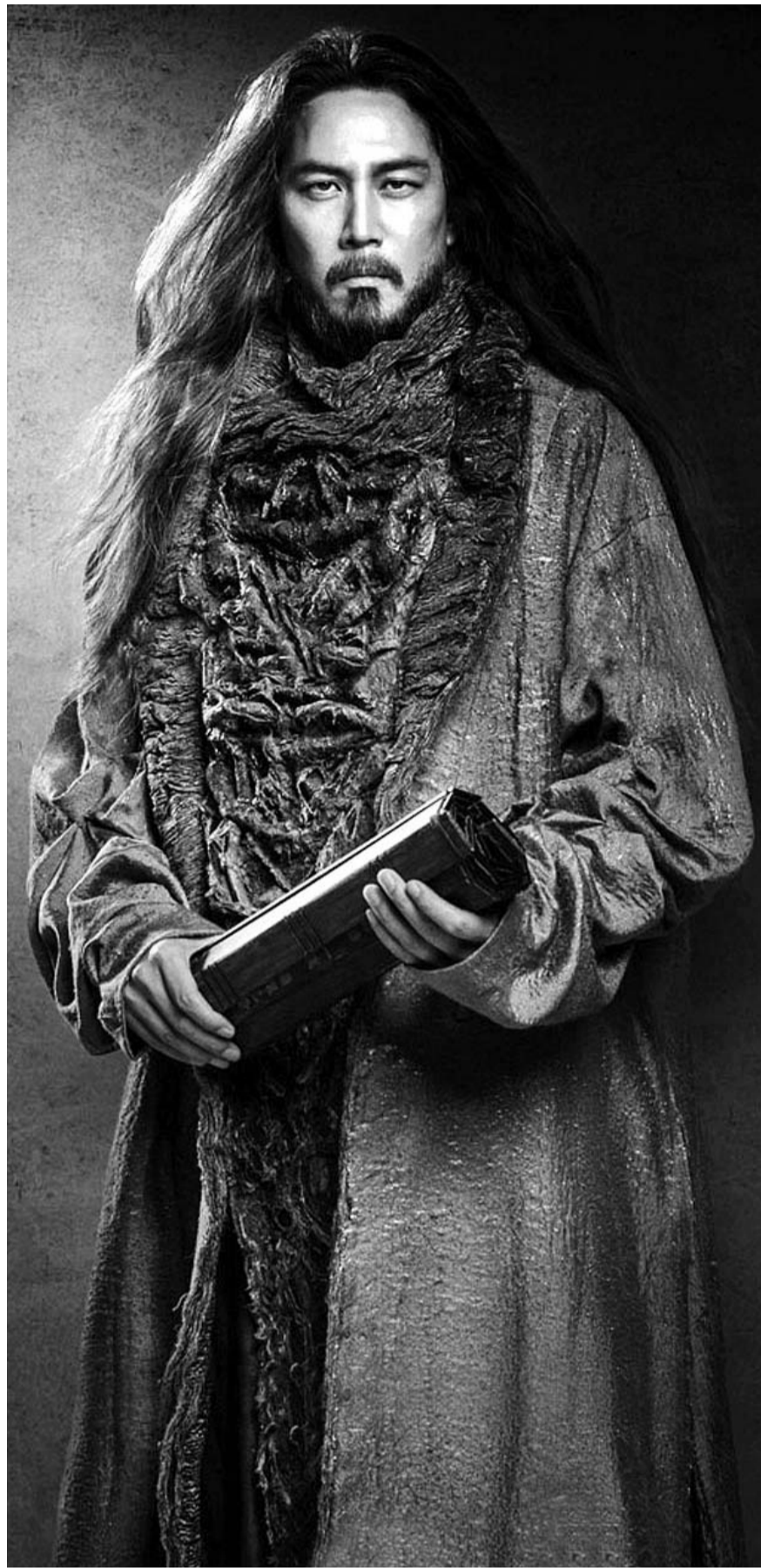


“특별출연이라더니... 속아서 30회나 촬영”



‘신과함께 2’ 연라대왕 역

이 정 제

“3·4편 제작하면 계약서 꼼꼼히 쓸래요”

“신과 함께 3·4편이 제작되고 또 연라 역을 준다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계약서는 꼼꼼히 써야겠죠.”

지난해 1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의 엔딩 크레디트에는 특별 출연자가 존재한다. 연라대왕을 맡은 배우 이정재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용화 감독이 “아주 작은 역할이라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만 촬영하면 된다”며 특별출연을 제안했고, 이정재가 얼떨결에 수락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덧붙여 분명히 특별출연으로 알고 촬영장에 갔다가 1·2부 통틀어 30회차까지 촬영했다는 이정재의 푸념 역시 유명하다.

다음 달 1일 ‘신과함께-죄와 벌’의 후속작인 ‘신과함께-인과 연’ 개봉을 앞두고 25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재는 ‘신과함께’ 3·4편이 제작된다면 다시 한 번 연라대왕 역을 맡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화 감독과의 친분도 친분이지만 연라 역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사실 연라대왕을 언제 해보겠어요. 실제로 연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는 것도 재미거든요.”

다만, “3·4부에서도 특별출연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는 웃음을 보이며 “계약서는 꼼꼼히 쓰겠다”고 답했다.

그가 맡은 연라대왕 역은 극 중 얽히고 설켜 사연의 전말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캐릭터 자체가 이른바 ‘스포일러’ 덩어리인 셈이다.

이정재는 연라 역을 제안받았을 때 1·2부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받았다고 했다. 1부에서는 연라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2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김용화 감독이 특별출연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줬지만, 사실은 명백한 조연이죠. 김 감독이 제 이름 앞에 조연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특별출연이나 우정출연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거죠. 완벽한 조연이고 김 감독이 배려해준 거예요.”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연기를 시도할 수 있고 작품성이 뒷받침된다면 배역의 비중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겠다고 했다.

이번 작에서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연라대왕이 증인석에 앉은 장면을 꼽았다. 연라대왕도 진실을 가려내는 재판에서는 망자와 수평적인 관계에 놓인다는 점에 공감이 갔다고.

“사후 세계의 절대 권력인 연라대왕마저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낱 인간과 수평선 상에 놓일 수 있다는 설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특히 이 대목에서 김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은유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신과함께-인과 연’은 올해 한국 영화계의 최대 기대작이다. 벌써 1·2부 ‘쌍끌이 1000만’ 이야기도 나온다. 이정재는 “700만~800만 정도만 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별도 잊을 경쾌한 노래로 돌아왔어요”

가수 존박 신곡 ‘언더스탠드’ 발표

가수 존박이 8개월 만에 신곡으로 컴백한다. 25일 소속사 뮤직팜에 따르면 존박은 27일 싱글 ‘언더스탠드’(Understand)를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스마일’(SMILE)에 이은 신곡으로 뜨거운 여름에 어울리는 경쾌한 노래다.



존박은 신곡에 대해 “특히 솔로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면서 “이 노래를 작업할 때 이별을 겪고 있던 친구가 듣고 해맑게 따라 부르던 게 기억난다”고 소개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될 티저 영상에는 ‘언더스탠드’ 주요 멜로디와 가사가 담겼다. /연합뉴스



김성주

소유진

김성주, 백종원·소유진 부부와 찰떡 호흡?

백종원 이어 이번엔 ‘식구일지’서 소유진과 MC

방송인 김성주와 배우 소유진이 스카티비와 채널A가 공동제작해 편성할 가족 예능프로그램 ‘식구일지’에서 MC로 처음 호흡을 맞춘다.

‘식구일지’는 4인가족이 30일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함께 식사하는 미션을 수행, 성공하면 1천만원의 상금을 주는 내용이라고 방송사는 25일 설명했다.

소유진은 이번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평소 우리 가족도 저녁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저녁 식사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시청자들 또한 방송을 시청한 후, 가족들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성주는 “(소유진의 남편) 백종원 씨와는 SBS TV ‘골목식당’에서, 이번 ‘식구일지’에서는 소유진 씨와 함께 만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8월 중 방송 예정.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끝까지 사랑(재) 4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에니걸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0 이별이 떠났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30 영상앨범 산(재)	20 UHD 부잣집 아들(재)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5 문화사색(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판다랑 55 푸리가 식사교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비밀과 거짓말 (재)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파파독 2 15 도봇 V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0 할머니네 동강아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리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보는TV 인사이트	55 할머니네 동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스텔라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구내식당-남의 회사 유랑기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평양 여행기)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나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배워서 남줄라(재)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로보가 폴리	〈노마드 아시아 4부 아시안 하이웨이 7〉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뽀우	15:15 파프리카	〈여름이 아때서 4부 여름이 키우지요〉
09:00 두다다콩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잘 빠지는 며느리, 지쳐가는 시어머니〉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5:05 지식채널e
〈안초비 파스타와 자두잼 토스트〉	17:15 두다다콩	25:10 과학 다큐-비온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염려될만한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48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60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72년생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84년생 철저히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1, 74</p>	<p>午 42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인다. 54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이니 밤잠이 깊지 않다. 66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 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자. 78년생 세사 덕분에 이바를 먹는 격이로다. 90년생 전대미문의 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3, 66</p>
<p>丑 37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지리라. 49년생 조울과 의견개진이 필요한 단계이다. 61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73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85년생 의외로 빨리 처리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68, 88</p>	<p>未 43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환할 뿐이다. 55년생 향후의 상황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화젯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79년생 마무리가 시원찮을까 두렵다. 91년생 확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1, 42</p>
<p>寅 38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상이 훨씬 더 커다란 것을 깨닫자. 50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62년생 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형국이다. 74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86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0, 95</p>	<p>申 44년생 가닥을 잡지 않으면 맹쟁이 안개 되리라. 56년생 약재가 여러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68년생 과잉 확신은 오류를 낳기에 충분하다. 80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세이다. 92년생 참신한 발상으로 변화를 꾀해 보자. 행운의 숫자 : 92, 03</p>
<p>卯 39년생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라. 51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63년생 함께 할 일에는 빠지지 말고 반드시 동참하라. 75년생 근거가 없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87년생 상호간의 연결 고리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76, 63</p>	<p>酉 45년생 오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라. 57년생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69년생 세밀하게 살펴보면 큰 중차대함을 찾게 될 것이로다. 81년생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93년생 단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75, 41</p>
<p>辰 40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52년생 과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64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76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한다. 88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0, 43</p>	<p>戌 34년생 무자식이 삼팔자다. 46년생 똑같은 양상이다라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58년생 초기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되겠다. 70년생 핵심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82년생 다음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0, 01</p>
<p>巳 41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53년생 술 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65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77년생 일시적으로 중단수가 보이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89년생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1, 57</p>	<p>亥 35년생 원상회복의 기쁨이 크다. 47년생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59년생 간절히 바란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71년생 해결하기가 대단히 쉽다. 83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둘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55, 8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